

# INV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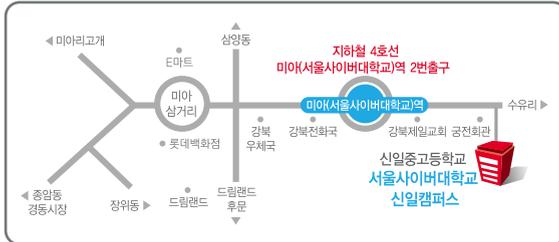
미래사회연구소 2011년 제 1차 심포지엄

## “사이버교육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교)역 2번출구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3-15번지 (142-700)

※ 무료주차 가능

문의 : 02-944-5276

일 시 • 2011년 2월 18일(금) 12:30 ~ 17:25

장 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4층 차이코프스키홀

참가비 • 무료

미래사회연구소 2011년 제 1차 심포지엄

## “사이버교육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2011년 2월 18일(금) 12:30 ~ 17:25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 : 이은주(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12:30~13:00	등록	
13:00~13:05	개회사	채정민(미래사회연구소장)
13:05~13:10	격려사	이재웅(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13:10~14:00	기조발표 : 사이버교육의 미래	황대준(성균관대학교 교수)
14:00~14:30	사이버교육 기술의 현황과 전망	한태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4:30~15:00	사이버교육 내용의 현황과 전망	박종선(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15:00~15:20	Coffee break	
15:20~15:50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심리 이해	채정민(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15:50~16:20	한국에서의 사이버교육의 방안	임병노(경희대학교 교수)
16:20~16:50	한국사이버교육의 해외진출 방안	조용상(KERIS 표준품질개발부장)
16:50~17:20	토의 좌장	이은주(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조일현(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미내(청주대학교 교수)
17:20~17:25	폐회사	채정민(미래사회연구소장)

미래교육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이버교육’이 이제 우리사회에서 연연히 현실 교육의 강자로 떠올랐다는 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전한 사이버교육은 특히 교육의 관심지대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의 새로운 발전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사이버교육은 현재 IT 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각국의 발전 모델을 글로벌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이버 교육도 우리문화에 더욱 더 적합한 방식이 창안되어 발전되는 로컬라이제이션과 이를 해외로 진출시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미래사회연구소는 2011년 제 1차 심포지엄의 주제를 ‘사이버교육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이버교육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교육의 미래를 먼저 그려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교육의 기술적 여건과 내용적 여건을 살펴봄, 문화심리학적 조망을 통한 우리 문화에 좀 더 적합한 사이버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이성과를 해외로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체적이고 문화심리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이버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설 미래사회연구소가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앞으로 한국의 사이버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다 나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을 이번 심포지엄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